

통폐합 위기 세계김치연구소 당분간 존치

시민단체·정치권 등 반대 식품연구원과 통합 유보 “연구 성과 높이고 역량 강화 절실”

통폐합 위기에 놓였던 세계김치연구소가 지역 사회 반대 여론을 등에 업고 당분간 존치하게 됐다. 26일 광주시와 세계김치연구소에 따르면 국가 과학기술연구회는 애초 김치연구소를 한국식품연구원으로 통합해 연구원의 광주 분원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잠정적으로 유보된 상태다.

지난 9월 이사회에서 상정되지 않은 데 이어 지난달 이사회에서는 보고 안건으로만 채택되고 의결 절차는 없었다. 통합 의지를 보였던 원광연 과학기술연구원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당분간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김치연구소는 내다봤다. 광주시, 시민단체, 정치권, 김치 협회 등이 존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키운 상황에서 다시 통합을 추진하기에 부담도 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치연구소는 2010년 1월 설립돼 2012년 10월 광주에 청사를 준공해 경기 성남에서 이전했다. 김치연구소는 그동안 연구 성과 부족 등을 이유

로 2013년, 2016년 기관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으며 2016~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지적을 받았다. 언젠가 통폐합의 불씨가 살아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기관의 위상은 김치연구소의 역량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조정은 김치연구소 전략기획본부장은 “개소 이후 조직 미비 등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가 2018년 이후로는 차츰 실적이 나오고 있다”며 “그동안 쌓은 데이터, 기반을 토대로 연구 활동을 지속하면 위상을 확고히 다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한국식품연구원으로 통합이 논의되면서 통폐합 위기에 처했던 세계김치연구소가 당분간 존치하게 됐다. 세계김치연구소와 김치타운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전남도, 의료·전기 등 10개 기업과 3127억 투자협약

50억 이상 투자 6개 기업 포함 3개기업 나주혁신산단 157억 투자

전남도는 26일 의료·전기·농업·해운물류 등 관련 10개 기업과 3127억원 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이번 협약은 각 기업에서 투자협약서에 서명하는 서면방식으로 추진됐다. 올 들어 10번째 가진 이번 투자협약은 50억원 이상을 투자기로 한 6개 기업이 포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분양률 80%를 상회한 나주 혁신산단에 3개 기업이 157억원을 투자하게 된다. 지엠케이(주)는 20억원을 투자해 국내 및 해외

수출용 혈액 순환기·수액 세트 등 의료기기를 생산한다. 고압케이블 제조업체인 (주)유성하이텍은 중기중인 납품 물량에 대응기 위해 기존 공장 옆에 45억원의 증설 투자를 결정했다. 경기 김포에 본사를 둔 쌍용전기(주)는 전남의 에너지산업 기반을 적극 활용키 위해 92억원을 들여 변압기 등 생산공장을 신설한다. 순천 해룡산단에 20억원을 투자할 (주)시호는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에 ICT를 접목한 원격 자동 유지관리 설비 제조공장을 갖추고 미래 농업기술을 선점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과 한약재 추출액으로 각종 가공식품을 생산한 농업회사법인 (주)초록엔푸드는 늘어

나는 국내의 주문 물량을 제때 공급하기 위해 구례에서 장흥 바이오 산단으로 확대 이전한다.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에 등지를 틀게 될 태웅글로벌(주), (주)더원로지스, (주)세양GLC 등 3개 기업은 컨테이너 수리·제조와 양질의 국제 물류 관련서비스를 제공해 광양항이 국제적인 물류 중심지로 발전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한편, 전남도는 민선 7기 이후 643개 기업과 18조4324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0월 말 기준 211개 기업과 4조5000억원의 협약 체결을 이끌어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지역상품 브랜드·디자인 개발 사회적기업 30곳 지원

전남도가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지역상품 브랜드·디자인 및 마케팅전략 개발지원 사업’을 통해 도내 사회적기업 등 30개 업체를 지원했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역상품의 브랜드, 디자인, 마케팅전략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0억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올해는 삼호 저두명품화 무화과

마을 등 사회적기업 9개, 마을기업 13개, 6차산업 인증기업 8개 등의 브랜드 개발 및 포장디자인 제작을 지원했다. 디자인·마케팅 및 기업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 20여명이 기업별로 전남해 사업초기부터 개발 전 과정에 거쳐 소비환경에 맞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한다.

개발된 브랜드·디자인을 기업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등록 및 판로개척도 지원하며, 제품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SNS 홍보 영상물 제작·배포를 비롯 제품 광고 노출, 온라인 판로 지원 등 홍보·마케팅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7년 36개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시작, 2018년부터 사회적기업, 6차산업 인증기업으로 지원범위를 넓혀 올해까지 총 123개사를 지원했다. 내년에는 정보화마을 기업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이용섭 광주시장 인터뷰

“AI 중심도시·광주형 AI 그린뉴딜 등 광주 미래 준비하는 일 멈출 수 없다”

광주시가 광주형일자리에 이어 인공지능(AI) 중심도시, 그린뉴딜을 선도하는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 광주 AI산업과 광주형 AI 그린뉴딜이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어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최근 정부와 국회, 산업계, 금융계, 학계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AI고도화대회와 ‘광주형 AI 그린뉴딜’과 관련해 국무총리실 산하 녹색성장위원회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는 등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형 AI 그린뉴딜’이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것은 정부 방침보다 5년이나 빠른 2045년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광주형 AI 그린뉴딜의 향후 구체적인 계획과 일부 시장 현안에 대해 들어본다.

다음은 일문 일답. -광주는 왜 ‘그린뉴딜’을 선택했나.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문제로 세계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런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와 기후위기 시대의 도시 경쟁력은 안전과 환경이 핵심이다. 각종 질병, 재난재해, 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 친환경 생태도시 여부가 도시 경쟁력의 주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광주는 다른 국가, 지자체 보다 앞서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실현을 통해 가장 안전하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글로벌 녹색도시로 도약해야 하기 때문이다.

2045년 에너지자립도시 실현 평등준공업지역 전략산업 개발 민간·군공항 이전 곧 좋은 결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내년 9월 완성차 10만대 양산을 준비하는 등 휴먼뉴딜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궁극적 목표는 광주형 3대 뉴딜의 성공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글로벌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것이다.

-다른 지자체의 ‘그린 뉴딜’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광주형 그린뉴딜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다. 그리고 150만 광주시민이 함께 참여한다는 점에서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다. 광주형 그린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내가 사용하는 전기는 내가 만들어 쓴다’는 시민 주도의 녹색분권을 실현하는 것이다. 또 다른 경쟁력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과 연계해 녹색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광주시 62만 가구의 전력소비 실태를 빅데이터화하여 에너지를 절약하는 에너지AI 클라우드를 구축할 계획이다.

-최근 광주시가 평등 준공업지역 일원을 광주형 3대 뉴딜정책의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개발사업 공모에 들어갔다. 대규모 아파트 조성을 위한 난개발 계획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AI그린뉴딜과 함께 인공지능 중심의 디지털 뉴딜, 상생과 안전의 사람중심 광주형 일자리를 기반으로 한 휴먼뉴딜 등 ‘광주형 3대 뉴딜’을 광주의 핵심사업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인공지능산업의 경우 올해 말 세계 10위 안에 드는 ‘AI특화 데이터센터’와 슈퍼컴퓨팅 센터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사관학교 등을 통해 AI인재를 양성하는 등 디지털 뉴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초 사회 통합형 노사상생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이번 사업은 끊임없이 개발을 요구했던 지역주민들의 오랜 민원 해소와 함께 도시개발법에 의해 체계적·효율적·친환경적 개발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와 에너지, 문화콘텐츠산업 등 광주시의 지역전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민간 사업자 공모를 한 것은 광주시가 자체 투자할 수 없는 제정의 한계와 민간 부문의 창의력과 자금동원력 그리고 첨단기술력을 활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제가 시장으로 있는 한 아파트 위주의 난개발은 물론 어떤 부조리나 부적절한 행정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녹색개발이 되도록 환경강 주변 친수공간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분석을 통해 친환경 정책과 개발사업이 충돌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

-광주 민간공항과 무안공항 통합, 군 공항 이전 문제가 난항이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협의중이고, 자세하게 말 할 수 없지만,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조합원님과 함께하는 광주문화신탁 창립 27주년

광주대표 서민금융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평생어부바 신탁

광주문화신탁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선로 91번길 20-4
cu08171@cu.co.kr 1644-7990

<p>문흥본점 266-4150</p>	<p>양산지점 573-4150</p>	<p>운암지점 528-4150</p>	<p>매곡지점 572-4150</p>
<p>침단지점 576-4150</p>	<p>운암산지점 513-4150</p>	<p>동광주지점 264-4150</p>	

문흥본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매곡지점 572-4150

침단지점 576-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동광주지점 264-4150